

아일랜드 IRELAND

성별임금격차 공개법 이행 현황

곽 서 회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9.6%를 기록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남성 근로자는 27.73유로(한화 약 4만원), 여성은 25.06유로(한화 약 3만 6천원)이다. 본고에서는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별로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12.7%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0.5%), 오스트리아(18.8%), 독일(17.6%) 순이었고,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2%), 루마니아(3.6%), 슬로베니아(3.8%)였다.
- 2026년 6월부터는 유럽연합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이 발효됨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 지침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지침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행정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와 같은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 아일랜드에서는 2021년 7월, 성별임금격차 정보법(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 및 민간분야 기관들은 성별 임금 내역을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올해까지는 150명 이상, 2025년까지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해당 법은 아일랜드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The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에서 관할하고 있다.

참고자료

- European Parliament(2023.4.5), "Gender pay gap in Europe: facts and figures (infographic)", <https://www.europarl.europa.eu/topics/en/article/20200227STO73519/gender-pay-gap-in-europe-facts-and-figures-infographic> (접속일: 2024.2.21.)
- Iris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23), "Gender Pay Gap Report", <https://assets.gov.ie/279281/cd365198-e093-46f0-ba4e-3acc6cf92503.pdf> (접속일: 2024.2.21.)
- KPMG (2023.5.18.), "How to report on your gender pay gap", <https://kpmg.com/ie/en/home/insights/2022/05/gender-pay-gap-reporting.html> (접속일: 2024.2.21.)
- The Irish Times(2023.10.18.), "State's gender pay gap was 9.6% last year, CSO finds",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2023/10/18/states-gender-pay-gap-was-96-last-year-cso-finds/> (접속일: 2024.2.21.)

2022년의 경우는 대상 기관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나 영업시간 내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정부의 중앙 웹사이트상에 시간당 성별 임금 내역을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가장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내역 뿐만 아니라 성별 보너스 지급 비율 및 금액,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성별 임금, 임금 수준 사분위별 성별 비율 등 매우 세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 The Irish Times(2024. 2.12),
"Progress might be slow but the
gender pay gap is shrinking",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2024/02/12/progress-might-be-slow-but-the-gender-pay-gap-is-shrinking/>
(접속일: 2024.2.21.)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 부처들 역시 각 부처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보고서로 공개하는데, 한 예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2023년 보고서에서 부처 내 직원 616명(여성 278명, 남성 338명)의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2022년 20.42%에서 2023년 13.7%로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유로(한화 약 7천 3백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 현황 보고서에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임금격차를 계산한 방법, 직군별 성별 분포, 사분위수 구간별 임금 격차 세부 현황 등도 상세히 공개했다.

아일랜드 통계청(CSO)은 근로 분야, 기업 규모, 근로 기간, 사기업 또는 공기업 여부, 전일제/시간제, 국적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부적인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 보험 및 부동산 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는 24.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시간당 남성 41.93유로(한화 약 6만원), 여성 31.59유로(한화 약 4만 5천원)), 이어 전문직, 과학기술 분야 역시 18.6%, 행정 분야 17.1%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낮은 분야는 교육 2.7% (시간당 남성 36.64유로(한화 약 5만 2천원), 여성 35.65유로(한화 약 5만 1천원)), 공공행정 및 방위 3.5%, 교통 및 물류 4.9%였다.

성별임금격차에서 연령별 격차를 살펴보면, 고령일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의 경우 -0.3%를 기록했다. 즉 오히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반면 50-59세의 경우 연령별 성별임금격차는 16.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7년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는 17.3%였다. 2022년 9.6%로 나타났으니 그 수치가 한 자릿수대로 하락한 것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약 1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한 일간지인 The Irish Times는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 가사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경력 개발이나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남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 아일랜드가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 2040년까지 자궁경부암 종식 선언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대표 아만다 프릿차드 (Amanda Pritchard)는 2023년 연례 학회에서 2040년까지 영국 내 자궁경부암 발병 종식을 목표로한다고 세계 최초로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종식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하의 발병률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목표에도달하기 위해 영국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궁경부암 검사 횟수 증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해당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HPV 백신 접종 접근장벽 완화

-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 중 99%가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에 지속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영국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지원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하 백신) 접종을 해야 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두고, 접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청소년의 경우, 10학년 전까지 여성 청소년 6명당 1명, 남성 청소년 5명당 1명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2세에서 13세 여성과 남성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백신 접종을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집단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확인되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학교와 주민센터 기반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2세에서 13세 청소년을 둔 모든 양육자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 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청소년 이외에도 다른 인구집단의 백신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국가의료보건의료서비스는 직원들을 파견해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체육관 등에서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뿐 아니라, 혈압검사, 간단한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백신 접종 공간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앱을 활성화하여, 백신접종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NHS. (2023.11.15.), "NHS sets ambition to eliminate cervical cancer by 2040", <https://www.england.nhs.uk/2023/11/nhs-sets-ambition-to-eliminate-cervical-cancer-by-2040> (접속일: 2024.02.20.)
- UK GOV(2021.03.17.),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overview", <https://www.gov.uk/guidance/cervical-screening-programme-overview> (접속일: 2024.02.25.)
- UK GOV(2023.01.21), "HPV validate cervical screening self-sampling study nears completion", <https://nationalscreening.blog.gov.uk/2023/06/21/hpvvalidate-cervical-screening-self-sampling-study-nears-completion> (접속일: 2024.02.25.)
- UK GOV(2019), "Adult Screening Programme: Cervical Cancer", <https://view-health-screening-recommendations.service.gov.uk/cervical-cancer> (접속일: 2024.02.25.)
- NHS(2023.01.05.),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and Colposcopy Manag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ervical-screening-programme-and-colposcopy-management/1-introduction-and-programme-policy> (접속일: 2024.02.25.)
- NHS(2024.01.23.), "Thousands more young people urged to take up HPV vaccine to meet NHS cervical cancer elimination goal", <https://www.england.nhs.uk/2024/01/thousands-more-young-people-urged-to-take-up-hpv-vaccine> (접속일: 2024.02.25.)

자궁경부암 검사 확대

-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의료 서비스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가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여성들은 25세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고 받는다. 24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들은 3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연락을 받고, 50세에서 64세의 여성들은 5년마다 연락을 받는다. 현재 영국에서는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3명 중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자궁경부암 검사가 70%의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해당 검사를 더 많은 여성이 받을 경우 83%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검사 비용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에서는 자기채취(self-sampling) 방법을 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 기존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검사 대상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가 자궁내의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 보내 위험이 높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면봉으로 자기 자궁 내 샘플을 스스로 채취하는 자기채취 방식이다. 2021년 영국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기채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5천 건의 샘플을 채취하여 1,750건의 질확대경 샘플과 비교하여 해당 방식의 정확성을 연구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자기채취 방식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10만 명당 4명 이하로 유지하여, 자궁경부암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향후 20년내에 자궁경부암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여러 방법의 사업 평가를 지속하고, 효과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